



농산물 포장 현황 및 전망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Packaging

박형우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박사

1. 농산물 포장 현황 및 전망

국내 농산물의 경우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적극적인 출하규격 및 포장규격화에 의한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포장율이 높아지고 있다.

과일의 경우 90% 이상 포장이 되고 있으며, 채소의 경우는 배추, 무를 제외하고 50%선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장 중량의 경우도 10~15kg 단위포장에서 5~7kg으로 소포장화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1, 2, 3kg짜리 소비자형 포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쌀의 경우는 20~40kg의 지대포장이 유통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나, 최근에는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500g, 1kg, 2kg, 3kg, 5kg 등 핵가족을 겨냥한 소포장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포장재의 경우도 지대포장에서 플라스틱 적층 포장재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를 첨가한 기능성 포장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 산지의 유통실태를 살펴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 생산지가 청과물을 선별·포장하는 공동출하의 핵심시설로서 2000년 말 현재 160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표 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선별기 및 저온창고 가동일수 추이

(단위:일)

구 분	선별기				저온창고			
	1997	1998	1999	2000	1997	1998	1999	2000
영농조합법인APC	107.4	112.4	116.4	127.6	207.9	261.3	269.1	275.4
농협APC	93.7	74.7	69.0	93.3	229.8	263.1	221.4	254.2
청과물종합유통시설	93.6	81.2	75.8	-	261.5	269.5	265.3	-
청과물종합처리장	NA	45.0	87.7	-	NA	293.0	309.7	-
평 균	100.3	93.2	92.6	108.3	230.5	265.3	254.0	263.5



[표 2]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손익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영농조합법인APC	17	29.2	34.1	30.0
농협APC	△43.4	5.7	△6.6	2.1
청과물종합유통시설	NA	3.0	16.4	-
청과물종합처리장	NA	123	143.3	-
평 균	△14.5	19.9	20.1	14.3

주: 1) 사업손익 산출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음

2) 2000년에는 '청과물종합유통시설' 과 '청과물종합처리장' 을 회원농협으로 통합하여 집계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주요 시설인 선별기와 저온창고의 평균 가동일수는 2000년 각각 263.5일로서 연도별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수익은 2000년에 평균 약 1,400만원으로 매우 적은 편인데,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대상 153개소 가운데 전체의 38.6%인 59개소가 손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00년도 사업 형태별 손익 실태를 보면, 영농법인은 매취사업을 실시한 18개소 약 4,500백만원의 흑자를 내었고, 수탁사업을 한 11개소는 약 1,7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반면 농협은 매취사업을 실시한 11개소가 약 1,700백만원의 적자를 보았고, 수탁비율이 70% 이상을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의 포장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채소류의 경우 포장율이 20% 이하이며, 이 포장율을 2008년까지 50% 이상으로 포장율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포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정부가 2008년까지 국내농산물의 저온유통율을 생산량의 20%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저온유통용 포장자재의 소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 농산물 포장 비교 및 차이점

과일의 경우 선진국과 외포장이라는 관점에서 의 차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으나, 채소류의 경우 포장율의 차이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식생활 패턴이 가을에 배추와 무를 사용하여 김치를 담궈 저장하면서 먹기 때문에 가을배추 및 가을무의 비중이 크고, 이로 인하여 배추 무의 포장율이 매우 낮은 편이므로 이로 인한 채소류의 포장율을 낮추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저온유통용 포장재에 왁스 침지, 플라스틱 코팅 및 EPS 상자를 외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저온유통용 포장재 원가절감과 상품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법에 의해 왁스

[표 3] 품목별 유통 출하형태

(단위: 개소, %)

구 분	과실류	채소류				서류 기타	계
		과채류	엽근채류	양념류	소계		
개별출하	38(40.0)	9(26.5)	7(58.3)	10(55.6)	26(40.6)	7(38.9)	71(40.3)
공동출하	56(59.6)	25(73.5)	5(41.7)	8(44.4)	38(59.4)	11(61.6)	105(59.7)
총계	94(100.0)	34(100.0)	12(100.0)	18(100.0)	64(100.0)	18(100.0)	176(100.0)

침지, 플라스틱 코팅, 심지어는 EPS상자의 사용도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어 저온유통을 위한 포장재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3. 농산물 포장 유통 현황

국내 농산물의 유통현황을 살펴보면 과실류는 96개 작목반 중 56개(59.6%), 채소류는 64개 작목반 중 38개(59.4%) 작목반이 공동출하를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별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류별로는 과채류와 과실류의 공동출하 비율이 높고, 엽근채류와 양념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4. 문제점 및 대응방안

국내 농산물 포장은 더 소포장화가 필요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농산물의 수확 후 품질유지를 위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포장분야에 개선 및 선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포장상자의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선별

하여 포장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이다.

2005년부터는 WTO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스러워짐에 따라 해외 농산물이 국내로 다량 수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농산물과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8개 분야의 기술개발, 보급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

독 자 켄 령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펴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